

# Gustave GUILLAUME의 心理力學論과 比較理論言語學적 관점

朴 亨 達

(言語學科 教授)

## 내 용 목 차

- 0. 인물 소개 : pp. 113-114.
- 0. 위 표제를 논하는 이유 : pp. 114-115.
- 0. 심리(=정신) 역학론의 골자 : pp. 115-131.
  - 0. 잠재성(=관통성)/현실성(=차단성) 관계와 그에 대립되는 잠재성(=비관통성)/현실성(=비차단성=첨가성) 관계 : pp. 115-117.
    - 1) 객관적인 제시의 관사 : p. 115.
    - 2) 언어의 보편적인 경향으로서의 관사 없는 명사의 예 : p. 116.
    - 3) 관사의 문제의 보편성 : 잠재적 명사와 현실적 명사의 구분 :  $T-q=1$  공식 : p. 116.
    - 4) 위와 반대되는 관점 :  $T+q=1+\dots$ 적 관점 : pp. 116-117.
  - 0. 심리(=정신)적 먼저/나중이라는 개념 : pp. 117-118.
  - 0. 동사의 시제에 대한 전통적=선조적=먼저/나중의 방법 :  $T+q=1+\dots$ 적 방법 : p. 118.
  - 0. 위 문제에 대한 선택이전/선택이후=심리적(정신적) 먼저/나중의 방법 :  $T-q=1$ 적 방법 : p. 118.
  - 0. 그림 해석 : pp. 118-119.
  - 0. 위 그림에서의 명사법에 관한 그림 설명 : pp. 119-120.
  - 0. 시상에 관한 그림 : p. 120.
  - 0. 두 대립되는 관점의 혼동의 위험성 : p. 121.
- 0. 관통적(=근원적) 심리(=정신) 운동과 포착적(=차단적) 심리(=정신) 운동의 존재 양식 : 이중 운동성과 비재기의 법칙 및 체계의 개념 :  $T+q=1+\dots$ 과 대립되는  $T-q=1$ 적 존재 양식 : 이방향적 운동과 등방향적 운동 : pp. 121-122.
- 0. 위 관점을 잘못 혼동하는 위험성 : p. 122.
- 0. 이중 운동을 나타내는 GUILLAUME의 그림 : pp. 122-126.
- 0. 동일시/혼동/변형 : pp. 126-128.
  - 0. SAUSSURE의 등방향적 공식과 그에 대립되는 GUILLAUME의 이방향적 공식 : pp. 126-127.
  - 0. HJELMSLEV의 공식 : pp. 127-128.
  - 0. BENVENISTE의 공식 : p. 128.
  - 0. GUILLAUME의 필연적 공식의 그림 : p. 128.
- 0. Incidence(=필연적=이방향적=이중운동적 동일시=혼동=변형) : pp. 128-129.
- 0. 언어 유형론 : pp. 129-131.
  - 0. 필연적 언어 유형론의 그림 : pp. 129-130.
  - 0. 자의적 언어 유형론의 그림 : p. 130.
  - 0. HUMBOLDT의 언어 유형론 : p. 130.
  - 0. CHOMSKY의 언어 유형론 : pp. 130-131.
- 0. GUILLAUME의 독창적 언어 이론(=심리역학론)과 앞으로의 전망 : 이론의 비교의 필요성 : p. 131.

## 0. 인물 소개

Gustave GUILLAUME(1883~1960) : 독학자로서 한때 은행원으로 있으면서 École Pratique des Hautes Études(고등 학술원)에서의 A. MEILLET, Louis HAVET 등의 강의를 들으며 뒤늦게 언어학에 들어왔다. 그의 탁월한 재질이 MEILLET의 주의를 끌어, MEILLET가 1909년에 처음으로 그를 만났을 때,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중의 하나”라고 격찬할 만큼, 언어학에

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창조적 사고력의 소유자임을 인정 받았다. 1919년에 고등 학술원의 자격 논문으로 *Le Problème de l'article et sa solution dans la langue française* (관사와 그것의 불어에서의 해결에 관하여)를 제출하였고, 그 후에 MEILLET의 유언과 VENDRYES 및 GUILLAUME 보다 20년 년하로서 이미 고등 학술원의 연구 주임으로 있던 BENVENISTE의 추천에 의하여, 고등 학술원의 강의를 맡게 되었다(1938~1960).

그의 이론의 특징은 그의 완강한 고집과 비타협적 고립으로 말미암은 자기나름의 이론의 전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MEILLET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SAUSSURE의 이론을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SAUSSURE의 제자인 MEILLET는 SAUSSURE의 이론을 잘못 이해하여 그의 제자들에게 전파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G. MOUNIN, Ferdinand de Saussure, Paris, 1968, pp. 48-49 참조).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에서 GUILLAUME이 비록 SAUSSURE를 MEILLET를 통해서 간접으로 배웠다고는 하나, 그 간접으로 배운 SAUSSURE나, 그의 스승 MEILLET 자체를 넘어서서, 스스로를 신 SAUSSURE학파(neo-Saussurien), 더 정확히는 탈 SAUSSURE파(G. GUILLAUME, *Langage et Science du Langage*, Paris/Québec, 1973, p. 28 참조; 역사 언어학에서의 신 문법학과(néogrammarien)의 비교 방법과 대립되는 심리역학론에서의 비교 방법에 대해서는, R. VALIN, *La méthode comparative en linguistique historique et en psychomécanique du langage*, Québec, 1964 참조)라고 자처 할이 만큼, 독특한 자기의 이론을 전개했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 0. 위 표제를 논하는 이유

지금까지 인물이나 국가, 언어나 어족에 따라, 두각을 보이는 각 학파의 문법이론 또는 이론 언어학을, 개별적으로 학습 또는 연구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것들을 하나의 연속체로서 파악하고 비교함으로써,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의 연속체로서 파악되고 비교된 문법이론/이론 언어학의 대응부로서의 언어도, 각각의 이론의 적용을 받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이론의 연속체의 대응부로서의, 언어의 연속체로서 파악 할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이론의 연속체와 언어의 연속체를 이론과 언어의 평등적인 연속체로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위 표제를 논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GUILLAUME의 이론은 위와 같은 내용에 합당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위 표제의 GUILLAUME의 이론이란 이론의 분석론인 동시에 언어의 분석론, 비교 문법 이론 또는 비교 이론 언어학인 동시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비교 언어(기술)학의 정립을 그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법 이론(이론 언어학)은 두가지 방법 즉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그림과, 이론의 전개에 사용되는 용어으로써 표시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문법 이론(이론 언어학)을 비교하여 하나의 이론의 연속체를 성립시키려면, 그림과 용어를 비교하여, 그림의 연속체

와 용어의 연속체를 성립시킴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이론의 연속체를 GUILLAUME은 지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언어의 연속체는, 그림의 연속체와 용어의 연속체가 성립하면, 자연히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도 GUILLAUME은 이러한 언어의 연속체관(유형론 觀點)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상 拙稿: 理論言語學(一般文法)의 比較에 關하여<서울大·人文·第16輯, 1986, p. 107> 참조).

GUILLAUME의 觀點을 좀 추상적으로 다시 말하면, 가장 근원적인 이론의 연속체와 그의 필연적 대응부로서의 언어의 연속체를 위주로 하여, 자의적 이론의 단절체와 그에 각각 자의적으로 대응된 언어의 단절체를 제거/배제하는 적극적(=필연적) 비교의 觀點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적극적=필연적 비교의 觀點)은 필연적(근원적)인 이론의 연속체와 그의 필연적 대응부로서의 언어의 연속체의 존재를 모르고, 이론의 단절체와 그에 각각 자의적으로 대응된 언어의 단절체만을 알므로써, 그들 단절체 상호간에 오직 단절체적(자의적) 제거/배제만이 있는, 소극적(=자의적) 비교의 觀點과 대립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아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GUILLAUME의 심리 역학론(Psychomécanique)의 골자, 그와 대립되는 觀點과 비교시키면서, GUILLAUME의 觀點의 순서에 따라서, 설명해 나가기로 한다.

0. 잠재성(=관통성)(virtuel)/현실성(=차단성)(actuel) 관계와 그에 대립되는 잠재성(=비관통성)/현실성(비차단성=첨가성)관계 :

구체적인 예로는, 명사와 관사의 예를 들 수 있는데, 이는 1919년에 나온 GUILLAUME의 “관사와 그것의 불어에서의 해결에 관하여”(Le Problème de l'article et sa solution dans la langue française, Paris, 1919)에서 구체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객관적인 제시(Présentation)의 관사는 다음의 경우에서 특수한 저항을 받는다 :

1. 객관적으로 제시할 사물이 일정한 형태를 갖지 않을 때(예 : 물 l'eau)
2. 객관적으로 제시할 사물이 불확실한 수 개념을 가질 때(예 : 꽃 des fleurs).

◦ 위 두(관사에 대한 저항의) 경우에서, 예컨대 불어에서는 특수한 관사(du, de la, des)를 만들어 냈다 :

고대 불어 : mangier pain

현대 불어 : manger du pain

◦ 독일어나 영어에서는, 관사에 대한 저항을 그대로 유지했다 : Gib mir Brot, Wein, Kirschen; Bring me some good coffee 등등.

이로 부터 GUILLAUME은 다음과 같이 결론한다 : 관사에 대한 저항의 보편적인 성격은 관사가 언어(laigue)라는 항구적인 영상(image)보다는 표현\*(discours)이라는 순간적인 영상에 좌우된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관사의 문제...p. 18) (\*주의 : 아래 p. 123 참조).

2) 언어의 보편적인 경향으로 예컨대, 다음과 같은 명사 앞에서는 관사를 안쓴다 :

1. 고유명사나 지명(불 : France; 영 : Europe 등),
2. 하나 밖에 없는 사물의 명사(불 : Terre et Ciel, 영 : heaven and ealth, 독 : Himmel und Erde 등),
3. 물리적/정신적 성격의 명사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명사 또는 아주 일반적인 뜻의 복수명사(불 : amour, pitié; 영 : charity, patience, experience; 독 : Hoffnung, Gewalt, Recht...; 영 : foxes, birds; 독 : Kinder 등등) 앞에서.

위의(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예로 부터 GUILLAUME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지적한다 :

◦ 관사가 없이 사용되는 명사는 언어라는 일반적인 개념에 가까운 명사로서, 그 명사가 덜 일반적이고 따라서 더 현실에 가까운 표현으로 옮겨 갈 때, 변이의 가능성이 아주 적은 명사이다. 즉 ciel(하늘)은 언어에 유일한 사물이며, 표현\*에서도 유일한 사물이다. 따라서 언어와 표현사이에는 아무 변이가 없다. 마찬가지로 추상 명사 pitié(불쌍함)도 그와 같은 명사이다(\*주의 : 아래 p. 123 참조). 이로 부터 :

◦ 이와 같이, 언어에서의 명사와 표현에서의 명사의 차이가 적을 때, 관사가 덜 필요하다는 사실은, 관사가 그들 두명사의 차이를 들어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관사의 문제...p. 21).

3) 요컨대, 관사의 문제는, 아주 보편적인 문제로서, 인간의 정신이, 여러가지의 달리 인식되는 사물들을 지칭하는 단순한 잠재성(puissance)으로서의, 즉 사용이전의 명사와, 현실(effet)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물들을 지칭하는 명사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낀 시기에 까지 소급된다. 따라서 관사란 잠재적인 명사(nom virtuel)와 현실적인 명사(nom réel) 사이의 관계의 징후(signes)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관계를 GUILLAUME은 선택(choix) 또는 절단(coupure)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즉 예컨대 homme(사람)이라는 단어는 그것을 하나의 특정 대상에 적용하지 않는 한, 여러 상이한 개념의 범위를 내포하며, 그 범위 중에서 사람이 자기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순간(즉 표현이라는 현실적이고 한정된 목적을 위해서) 선택을 한다고 설명한다. 달리 말하면, 이 선택은(관사에 저항하는) 명사의 전체적인 잠재적 의미에다 절단을 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뒤에설명되겠지만) 이것을 공식으로 표시하면 전폭적인 잠재성으로서의 명사 T가, 실현단계에서 관사 q의 차단으로 인하여 그 차단에 저항하며 관사 q를 제거/배제하고 있는 모습을  $T - q = 1$ 이라고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1은 위의 매듭에 해당함).

4) GUILLAUME은 위와 반대되는 해결 방법의 예로써, 명사 형태의 선택을 문맥(=선조성)에다 맡기는 해결 방법을 들고 있다. 이것은 곧 위에 말한 바 관사으로써 선택(차단)하기 이전의 잠재적 명사 형태와 관사으로써 선택(차단)한 이후의 실현적 명사 형태를 혼동하는 관점으로서, 사실상 선택(차단)이라는 개념이 결여된 소위 전통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앞의 예에 나온 관사 없는 명사를 중심으로 하여 관사 있는 명사를 선택

명하되, 선택(차단) 이후의 실현적(관사있는) 명사를 선택(차단) 이전의 잠재적(관사없는) 명사와 혼동함으로써, 이같이 혼동된(관사 있는) 명사로서의 명사를 중심으로 하여, (관사 있는) 명사를 설명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GUILLAUME은 이러한 해결 방법을 두고 가장 단순하고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해결 방법이라고 못박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일은, 이와 같이 GUILLAUME의 잠재성(T)/실현성(=선택=차단( $T-q=1$ ))의 구분과 대립되는, 실현만이 있는 관점을, 아무리 그 테두리 안에서, 예컨대  $T=$ 잠재성;  $q=$ 실현성이라고, 그 명칭을 붙여 보아도, 여전히 그것은 전통적 해결 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공식으로 표시하면, 위의  $T-q=1$ 의 공식과 대립되게, 현실성 만으로서의 명사 T가 역시 현실성 만으로서의 관사 q를 제거/배제하지 않고, 또 관사 q가 명사 T를 차단하지도 않는 명사 T에 관사 q가, 무한대를 향하여( $1+\dots$ ), 첨가 되는 모습을,  $T+q=1+\dots$ 이라고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위 공식에서 1;  $1+\dots$ 은 매듭이라 할 수 있음).

이 점은 특히, 현실 언어의 연구에 있어서나, 이론 자체의 연구에 있어서, 경계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되므로, 특별히 강조하여 두는 바이다.

예컨대 MARTINET의 선택의 개념, 그리고 잠재성/실현성의 개념은, 이 점에 있어서  $T+q=1+\dots$ 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MARTINET, *Élément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1964, §1-19, §4-11 참조).

#### 0. 심리적(정신적) 먼저(précoce)/나중(tardif)이라는 개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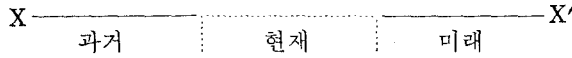
이 개념은 앞에서 말한 잠재성/실현성의 개념을 더 구체화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1929년에 나온 GUILLAUME의 *Temps et verbe*(Paris, 1929/1965)(시제와 동사)에서 자세히 전개되고 있다.

그 주요 골자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 동사의 시제를 다루는 전통문법에서의 관점은, (앞의 명사와 관사의 문제를 다룰 때와 마찬가지로), 선택(차단) 이전의 잠재적 무시제 동사 형태와 선택(차단) 이후의 실현적 유지제 동사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선택(차단) 이후의 실현적 유지제 동사 형태만을 고려하여, 그 중에서, 형태적으로 선택(차단)이전의 잠재적 무시제 동사 형태와 동일 형태의 현재형의 동사 형태를 중심으로 하여, 역시 선택(차단)이후의 실현적 유지제 동사로서의 과거 시제 동사와 미래 시제 동사를 설명하는 관점이다. 즉 다시 말하면(앞의 명사와 관사의 문제의 경우와 같이), 선택(차단)이전의 잠재적 무시제 동사와 선택(차단)이후의 실현적 유지제 동사로서의 현재형 동사와를, 혼동한 관점,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현재형을 중간에 삽입하여 좌/우에 과거와 미래를 거느리는, (무한대의)선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선은(전폭적인) 잠재성으로서의 무시제 동사 T가, 실현 단계에서, 시제 q의 차단으로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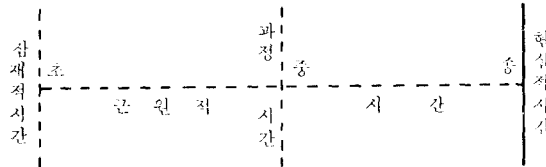
여, 그 차단에 저항하며 시제 q를 제거/배제하고 있는 모습을 표시하는 공식 :  $T-q=1$ 이 나타내는 유한한 선이 아니라, 현실성만으로서의 동사 T(=동사의 현재형)가, 역시 현실성만으로서의 시제 q를 제거/배제하지 않고, 또 시제 q가 동사 T를 차단 하지도 않는, 동사 T와 시제 q의 무한한 첨가의 모습을 나타낸 공식 :  $T+q=1+\dots$ 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GUILLAUME은 이  $T+q=1+\dots$ 의 공식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그림으로 표시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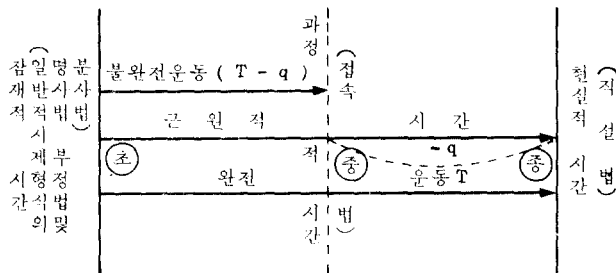
이것은 곧 다음의  $T-q=1$ 의 공식이 나타내는 심리적(=정신적)먼저/나중의 개념과 대립되는, 선조적(=문맥적) 먼저/나중의 개념을 표시한 그림이다.

◦ 위의  $T+q=1+\dots$ 공식과 대립되는  $T-q=1$ 의 공식의 내용을 GUILLAUME은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표시한다 :



이것은, 위의 선조적(=문맥적) 먼저/나중의 개념과 대립되는, 심리적(=정신적) 먼저/나중의 개념을 나타낸 그림이다. 즉, 근원적(=관통적)시제가 먼저이고, 포착적(=차단적)시제가 나중이다. 왜냐하면, “정신에서의 시제 영상의 형성은, 비록 그것이 아주 짧은 정신 작용이지만, 그래도 무한히 짧은 시간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즉 실제의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시제와 동사, p. 8).

◦ 위의  $T-q=1$  공식의 그림을 GUILLAUME은 다시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표시한다 :



0. 그림 설명 :

◦ 근원적(관통적) 시제 (temps chronogenetique) : 포착(=차단) 이전의 관통적(=근원적) 심리적(=정신적) 운동으로서의 무시제적동사 영상 : 포착(=차단)적 심리적(=정신적) 운동에 의해서, 실현되는 퍼 실현체 ; TESNIERE의 매듭\*(noeud) 또는 관계\*(connexion)와 비교

가능(\*주의 : Lucien TENSNIÈRE, *Éléments de Syntaxe Structurale*, Paris, 1969, p.14; p.15; p.11 참조).

◦ 완전한 포착적(차단적) 심리적(=정신적) 운동 T(visée complète T) : 포착(=차단)된 실현단계로서의 명사법(=부정법 및 분사)적 동사 영상 내부의 시제 : 위의 피 실현체를 실현하는(일반적) 실현체(=T) : TESNIÈRE의 핵\*(nucléus) 또는 이전\*(translation)과 비교 가능. 즉  $T = \text{⌈} \text{ } \text{⌋}$  또는  $\text{⌈} \text{ } \text{⌋}$  (\*주의 : TESNIÈRE, *Éléments...*, p.45; p.47; p.364; p.386 참조).

◦ 불완전한 포착적(=차단적) 심리적(=정신적)운동 T-q(visée incomplète T-q) : q(=접속법)에 의해서 포착(=차단)된 실현 단계로서의 접속법적 동사 영상 외부의 시제 : 바로 위의(일반적) 실현체=T의 내부 구조 : TESNIÈRE의 피이전핵\*(transférènde), 이전 핵\*(translatif) 그리고 이전·피 이전 연속 핵\*(transféré)과 비교 가능. 즉  $T-q=1$ 은  $\text{⌈} \text{ } \text{⌋}$  또는  $\text{⌈} \text{ } \text{⌋}$  과 비교 가능(\*주의 : TESNIÈRE의 이전이론의 그림에 관해서는, L. TESNIÈRE, *Éléments...*, p.361 이하 참조; \*p.36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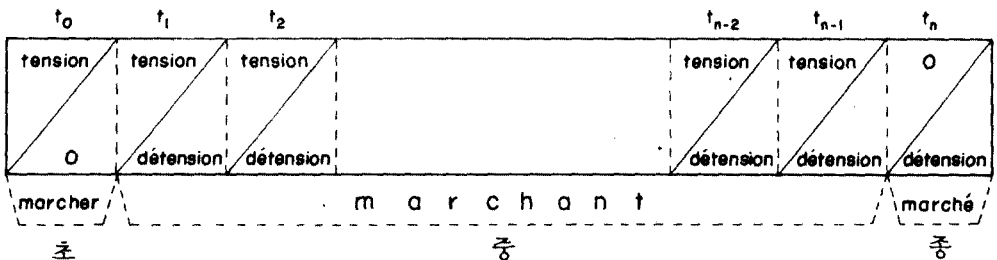
◦ 초(I) : 잠재적 시제(일반적 시제) 형식의 명사법 : 걷다=marcher=부정법, marchant=분사, marché=과거 분사)(temps in posse : mode nominal à formes temporelles généralisées : infinitif et participe) : (일반적)실현체=T의 초적 실현체=T의 내부 구조 : (일반적) 실현체=T와 같음.

◦ 중(M) : 포착적(=차단적) 시제(접속법 : 그가 올지도 모른다=Il est possible qu'il vienne (temps in fieri : mode subjonctif) : (일반적) 실현체=T의 종적 실현체=M의 내부 구조 : (일반적)실현체=T의 내부 구조 즉,  $T-q=1$  즉  $\text{⌈} \text{ } \text{⌋}$  또는  $\text{⌈} \text{ } \text{⌋}$  와 같음.

◦ 종(F)(\*주의 : 연결에 관해서는 TESNIÈRE, *Éléments...*, p.323 참조) : 현실적 시제(=적설법 : 그가 올 것이 확실하다=Il est réel qu'il est venu (temps in esse : mode indicatif) : (일반적) 실현체=T의 종적 실현체=F의 내부 구조 : (일반적)실현체=T의 내부 구조 즉  $T-q'=1$  즉 TESNIÈRE의 연결\*(=jonction : A-B)과 비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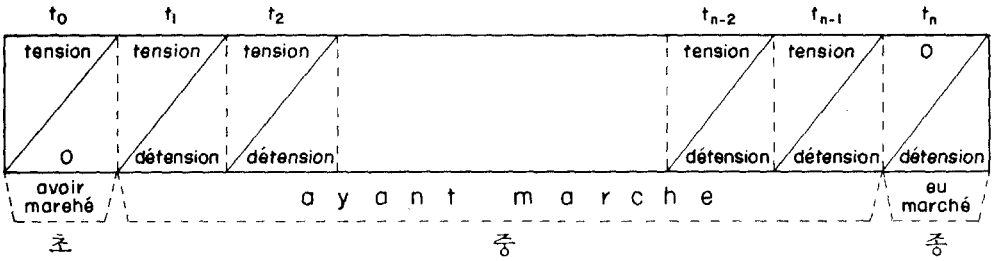
0. 위 그림에서의 명사법에 관한 그림 : 위 그림의 해설로써 설명가능 :

제 1 계열(Série 1) : 근원적(관통적)시제에 해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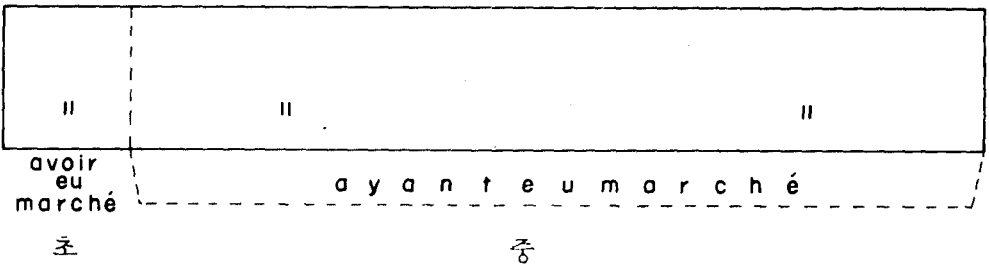
- $t_0$  : 제 1 계열의 초적 실현체의 내부구조 : tension(장력)/détension : 0(탈장력 : 영)
- $t_1, t_2, \dots, t_{n-1}$  : 위 계열의 종적 실현체의 내부구조 : tension(장력)/détension(탈장력)
- $t_n$  : 위 계열의 종적 실현체의 내부구조 : tension : 0(장력 : 영)/détension(탈장력)

제 2 계열 (Série 2) : 완전한 포착적 (=차단적) 심리적 (=정신적) 운동 T에 해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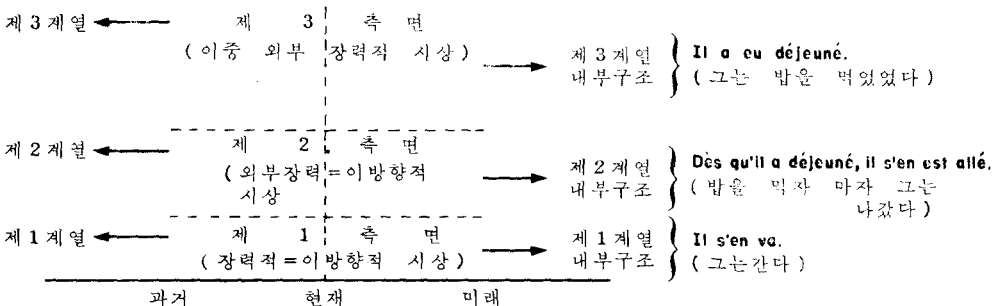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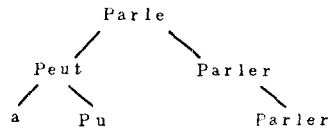
위 제 1 계열에 준하는 제 2 계열의 내부구조

제 3 계열 (Série 3) : 불완전한 포착적 (=차단적) 심리적 (=정신적) 운동 T-q에 해당 :



위 제 2 계열에 준하는 제 3 계열의 내부구조 (\*위 그림의 ayanteumarché는 ayant eu marché의 誤植임)

0. 상(aspect)에 관한 그림 : 위 그림의 해설로써 설명 가능. TESNIÈRE “Il a pu parlé”의 분석(L. TESNIÈRE, Théorie structurale des temps composés <Mélanges de linguistique offerts à Charles BALLY, Genève, 1939/1972, p.175 참조) :



이상에서 GUILLAUME의 공식 T-q=1이 나타내는 관통(=근원)적 심리적(=정신적) 운동



과 포착적(=차단적) 심리적(=정신적) 운동의 먼저/나중의 문제를 설명함에 있어서, TESNIÈRE와의 비교도 함께 하였다. 그런데, GUILLAUME과 비교되는 TESNIÈRE의 관계/이전/연결의 구분을, 선조적(=문맥적) 먼저/나중의 개념으로 잘못 해석하는 일이 있다(예컨대 MARTINET의 관계/종속/대등의 구분, 또는 확대의 개념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Éléments... §4-30이하 참조). 이는 심리적(=정신적) 먼저/나중의 개념과는 정면으로 대립되므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0. 관통적(=근원적) 심리(=정신)운동과 포착적(=차단적) 심리(=정신)운동의 존재 양식 : 이중 운동(double movement)과 비재기(non-réurrence)의 법칙 및 체계의 개념 :

위 표제의 두 운동의 존재 양식은 이미 앞에서 관사의 문제와 동사의 시제의 문제를 다룰 때, 이미 설명이 되었다. 즉  $T+q=1+\dots$ 과 대립되는  $T-q=1$ 의 공식의 내용은, 동일한 1의 테두리 안에서의 포착적(=차단적) 심리(=정신)운동  $T-q$  즉 1을 중심으로 하고, 관통적(=근원적) T를 초와 종으로 하는 공존이었다. 그리고 이 공존은 무한  $1+\dots$ 을 향하여, (비관통적=비근원적=현실적) T를 중심으로 하여, 그 좌/우에(비포착적=비차단적=첨가적) q를 거느리는  $T+q=1+\dots$ 적 무한대의 선조적(=문맥적) 공존과 대립되는 공존이었다. 이를 정리하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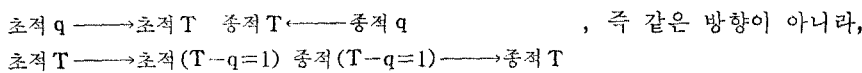
1)  $T-q=1$ 의 공식 : 동일한 1의 테두리 안에서 포착적(=차단적)  $T-q$  즉 1을 중심으로 하고 관통적(=근원적) T를 초/종으로 하는 공존;

2)  $T+q=1+\dots$ 의 공식 : 무한대의  $1+\dots$ 을 향하여(비관통적=비근원적=현실적) T를 중심으로 하고, (비포착적=비차단적=첨가적) q/q'를 초/종으로 하는 공존.

위 1)과 2)의 공식에서, 중심(=중)과 비중심(=초/종) 사이의 방향의 특징을 살펴보면 :

1)  $T-q=1$ 의 공식에서의 중심(=중) :  $T-q$ (차단적=포착적 운동)와 비중심(=초/종) : T(관통적=근원적 운동) 사이에 존재하는 운동 방향의 특징 :

- 첫째 방향 : 초적인 T에서 초적인 중, 즉 초적인  $T-q$  즉 1로의 방향
- 둘째 방향 : 종적인, 즉 종적인  $T-q$  즉 1에서 종적인 T로의 방향의 두 가지 방향이 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방향은, 서로 같은 방향이 아니라, 서로 다른 異방향이다. 즉 :



와 같이, 서로 다른 異 방향이다.

2)  $T+q=1+\dots$  공식에서의 중심(=중) 즉, (비관통적=비근원적=현실적) T와 비중심(=초/종), 즉, (비포착적=비차단적=첨가적) q/q' 사이에 존재하는 방향의 특징 :

- 첫째 방향 : 초적인 q에서 초적인 T로의 방향
- 둘째 방향 : 종적인 q'에서 종적인 중, 즉 종적인 T로의 방향이 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방향은 서로 다른 방향이 아니라, 중심을 향해서 모이는 같은 等방향이다. 즉

초적 T → 초적 (T-q=1) 종적 (T-q=1) → 종적 T , 즉 서로 다른 異 방향이 아니라,  
 초적 q → 초적 T 종적 T ← 종적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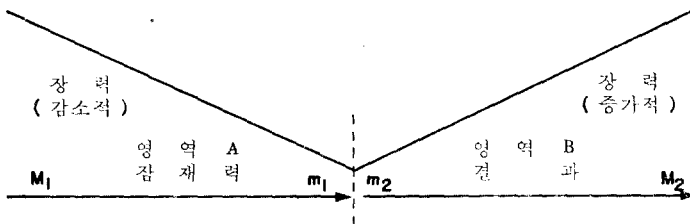
와 같이, 중심을 향하여 모이는 等 방향이다.

0. 이중 운동에 관한 GUILLAUME의 설명을 요약하면 :

관통적(근원적) 운동의 연속체를 만족시키는 A/B 관계는 출발점으로 되돌아 오지 않는 非再起(비반복)(non-réurrence)의 두 방향으로의 일주 즉,  $A_1 \rightarrow B_1 | B_2 \rightarrow A_2$ 라야 하며  $A \rightarrow B = 1/2$  관계, 와 같은 그림 표시는 피해야 하며, 또 출발 위치로 되돌아 가서 그 관계를 무효화 시키는  $\left. \begin{matrix} A \rightarrow B \\ A \leftarrow B \end{matrix} \right\} = 0$ 와 같은 그림 표시는 피해야 한다고 했다. (Principes de linguistique théorique de Gustave Guillaume, Québec/Paris, 1973, pp. 99-100) (이는 위에서의 이방향적=비재기적=이중 운동적 연속체 및 그에 대립되는 등 방향적=재기적=반복적=탈 이중 운동적 연속체 표시 및 그 설명과 취지를 같이 한다).

0. 위 GUILLAUME의 이방향적=비재기(비반복)적=이중 운동적 심리적(정신적) 연속체관을 잘못 해석할 경우에는, 등방향적=재기(반복)적=탈 이중 운동적 단절체관을 낳을 수가 있다. 예컨대 MARTINET의, 문장을 단어(monème)로, 단어의 지시 요소(signifiant)를 음운(phonème)으로 분석하는 이중 분절(double articulation)관은, GUILLAUME의 이중 운동 관점에서의 종의 위치로서의 문장의 테두리 안에서의 분석이라는 점에서, 탈 이중 운동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MARTINET, Éléments, §1-8 참조).

0. GUILLAUME이 1941년에 더 분명히 이 심리적(=정신적) 운동을 관사의 체계를 통해서 설명한 그림은 다음과 같다(P. GUIRAND, Gustave Guillaume and Generative Grammer, Language Sciences, n°10, 1970, p.4 참조; 아래 그림은 R. VALIN, Petite Introduction à la Psycho-mécanique du langage, Québec, 1954, p. 37, 48; pp. 33-34의 그림들임) :



영역 A를 생성하는 장력 I 은(모두 이방향(extensivité)적으로 측정되거나) 하나의 질서(=잠재력의 질서)에서의 최대(M1)로 부터 동일한 질서에서의 최소(m1)로 향하는 사고의 진행을 나타낸다. 영역 B(=결과의 영역)를 생성하는 장력 II 는 그와 반대로—그것의 측정은 위와 같이(이방향적)이거나—전자와는 반대의 질서에서의 최소(m2)를 그 출발점으로 하고, 그와 동일한 질서의 최대(M2)를 그 도착점으로 한다. 그 결과, 둘째 단계의 운동(m2-M2)은 첫째 단계의 운동(M1-m1)의 도치적 반복, 즉 운동의 과정에서 이루어 지는 질서의 변화

(=잠재력의 질서에서의 결과의 질서로의 변화)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표현상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에르곤(Érrou)으로서 잠재력의 총체이며, 에네르게이아(Énérgieia), 즉 사고활동의 이론상 무한한 원천이 된다. 그리고 이 잠재력(성)(=에르곤)은, 실현되기 위해서는 활동성(=에네르게이아)으로 귀착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실현될 때, 언어는 잠재적 피지시(signifié)들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들 피지시는 기호(signe)와 결합하여 잠재력의 단위(단어)를 형성하며, 이들 단위의 도움으로 표현\*(discours)의 결과적 단위들이 구축된다. (주의: 위에서 G.의 discours를 (언어)표현이라고 옮긴 것에 대해서는, GUILLAUME, Langage et Sciences du Langage, Paris/Québec, 1973, p.28에 나오는, G.의 다음의 설명에 근거한다. 즉:

[언어학에 이롭지 못한 것은 parole(말)이라는 용어와 그 개념이었다.

유명한 SAUSSURE식 공식:

langage(언어활동)=langue(언어)+parole(말),

은,

parler(말하다)=discours(〈언어〉표현 행위), parole(말)=discours(〈언어〉표현)을, 암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을 것이다:

langage(언어활동)=langue(언어)+parole(말)(=discours(〈언어〉 표현)).

Parole(말)이란 용어는, 우리가parole(말) 이외의 다른 방법, 즉 온갖 종류의 기호, 몸짓, 글자로서 말을 할 수 있다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사실로 말미암아(...) 저절로 살아지고 만다. Parole(말)이란 용어가 살아지고 나면, 남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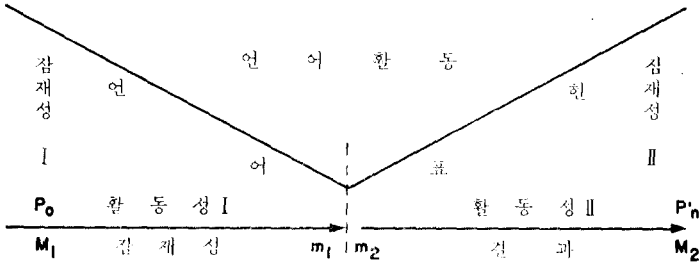
langage(언어활동)=langue(언어)+discours(〈언어〉표현)

으로서, 원래의 SAUSSURE식 공식을 정밀화한 신-SAUSSURE식 공식이 된다].

따라서, 이 (언어)표현(discours)은, (문장=담화를 위주로 하고, 그것을 등방향적으로 분석한다는 의미에서의) 담화(discours)와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위 공식에서, discours(〈언어〉표현)이라고 〈언어〉를 < >안에 넣은 것은, 위 공식에 이미 langue(언어)라는 용어가 있으므로, 그러한 문맥에서는, 다시 〈언어〉를 안 써도 〈언어〉표현임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한 문맥에서는 예컨대, expression(표현)에서의 표현과 쉽사리 구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discours를 모두 표현이라고 한 것도 그러한 생각에 연유한다. 또 拙稿:變形理論과 그 類型的의 定立作業, 語學研究, 23:3, 1987,에서도 모두 그렇게 하였음에 주의. 그리고 필자로서는, G.의 근본적인 생각에는 아무런 변화를 가함이 없이, G.의 discours(〈언어〉 표현)을, langue(언어<sub>1</sub>)에 대한 (그와 異方向적인) 언어<sub>2</sub>(langue<sub>2</sub>)로, 그리고 이렇게 고쳐진 언어<sub>1</sub>(langue<sub>1</sub>)과 언어<sub>2</sub>(=G.의 원래의 discours)의 (가장 구체적인=가장〈언어〉표현(discours)적인) 중간 통과지점으로서의, G.의 단어(mot)를 discours(〈언어〉표현)으로 잠았음에 주의).

잠재력의 질서에서의 잠재성(=에르곤)으로부터 떠나면, 사고는 다시 잠재력 맞은 편이 이번에는 결과의 질서에 속하는, 그의 활동의 종말단계에서 재현된다. 우리의 도식4(p.34)\*의 근본적인 기초를 재발견하려면, 출발(=언어=langue)의 잠재력(=에르곤)과 도착(=표현=discours)의 잠재력(=에르곤)이, 상이한 두개의 통시성(diachronie)에 속하고, 언어의

활동성(=에네르제이아)과 표현의 활동성(=에네르제이아)은 우리가 언어활동(acte de lan-  
 gage)이라고 부르는 활동의 실질(체) 그 자체를 이룬다는 사실을 상기함으로써 족하다. 한  
 법 다시 우리는 그림에 의존한다 :



\* pp. 33-34의 그림 3 및 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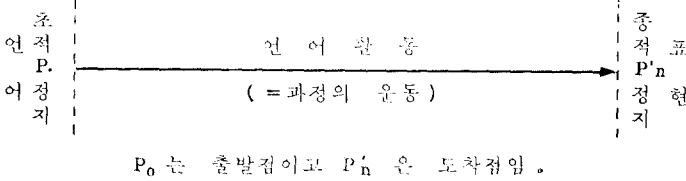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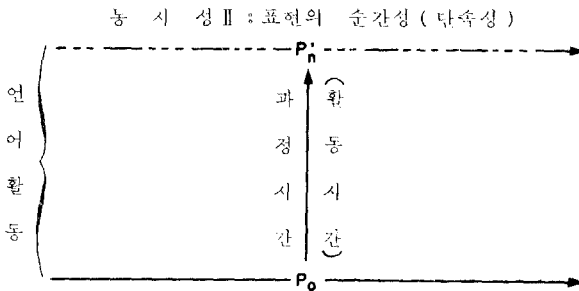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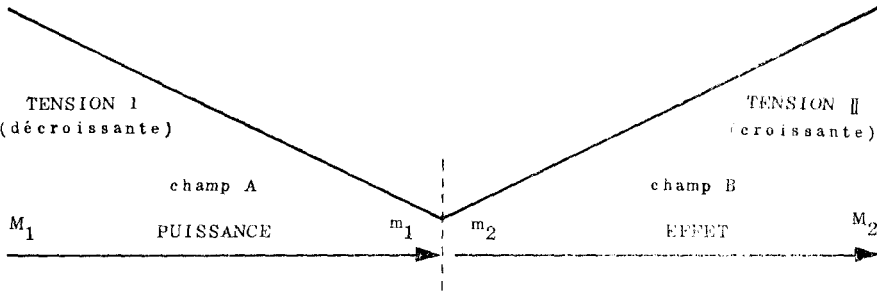


그림 4

이 그림은 그림 3의 연장에 불과하다. 즉 이 그림은 그림 3을 수직적으로 표시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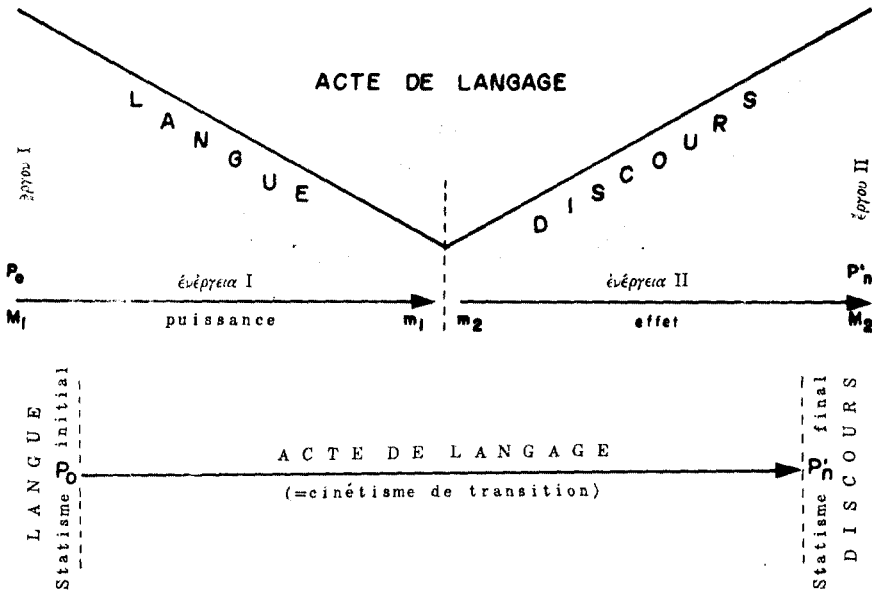


La tension I, génératrice du champ A, représente—les choses étant mesurées en *extensivité*—une marche de la pensée allant du *maximum* ( $M_1$ ) dans un ordre (celui de la puissance) au *minimum* ( $m_1$ ) dans le même ordre. La tension II, génératrice du champ B (celui de l'effet), 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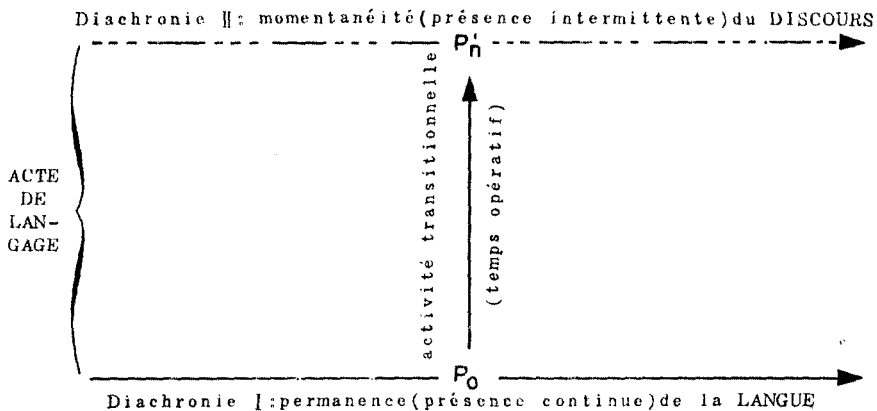
au contraire—la mesure des choses restant la même—une marche qui a son point de *départ* au minimum ( $m_2$ ) dans un ordre adverse au premier et son point d'arrivée au maximum ( $M_2$ ) de ce même ordre. De sorte que la seconde phase du mouvement ( $m_2 \rightarrow M_2$ ) n'est qu'une itération inverse de la première ( $M_1 \rightarrow m_1$ ), itération rendue possible par le changement d'ordre effectué au cours du mouvement (de l'ordre de la puissance on passe à celui de l'effet).

(...) Malgré le paradoxe apparent, la langue, en tant qu' $\xi\rho\rho\upsilon\nu$ , est un être tout de potentialité, une source, théoriquement inépuisable, d'activité pensante, d' $\epsilon\nu\epsilon\rho\rho\epsilon\iota\alpha$  et cet  $\xi\rho\rho\upsilon\nu$  doit, pour s'actualiser, se résoudre en  $\epsilon\nu\epsilon\rho\rho\epsilon\iota\alpha$ . En s'actualisant ainsi, la langue livre les signifiés de puissance, lesquels, conjoints à des signes, forment les unités de puissance (mots) à l'aide desquelles s'édifient les unités d'effet du discours (phrases).

Partie d'un  $\xi\rho\rho\upsilon\nu$  dans l'ordre de la puissance, la pensée se retrouve de nouveau, au terme de son activité, en face d'un  $\xi\rho\rho\upsilon\nu$ , mais appartenant cette fois à l'ordre de l'effet. Il ne resterait plus, pour retrouver les données fondamentales de notre figure 4 (page 34), qu'à rappeler que



$P_0$  est le point de départ et  $P_n$ , le point d'arrivée.



*l'éprou de départ (langue) et celui d'arrivée (discours) appartiennent à deux diachonies différentes et que l'événement de langue et celle de discours constituent la substance même de l'opération que nous appelons un acte de langage. Une fois de plus nous recourrons à une figure:*

*Cette figure n'est que le développement de la figure 3 dont elle offre, de surcroît, une représentation verticale qui ne change rien à son interprétation.*

0. 동일시/혼동/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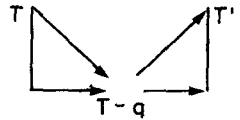
이 관통적(=근원적) 심리(=정신) 운동과 포착적(=차단적) 심리(=정신) 운동의 존재 양식으로서의, 이중 운동을 GUILLAUME은 넓은 데서 좁은 데로, 좁은 데서 넓은 데로의(이 방향적) 운동이라고 말한다(G. GUILLAUME, *Leçons de linguistique de Gustave Guillaume—Structure Sémiologique et structure psychique de la langue française II*, Québec/Paris, 1974, pp. 23-24).

G.의 이 이중 운동의 취지를 살려서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그것은 곧 이 방향적 동일시(혼동/변형)의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서 누누히 반복해서 대립시킨 바 있는 등방향적 동일시(혼동/변형) 운동과 대립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1) 이 방향적 동일시(혼동/변형)운동 :

넓은 데서 좁은 데로를 좁은 데서 넓은 데로와(로) 동일시(혼동/변형)하는 운동.

앞의 공식으로는 :  $T-q=1$



\*T-q는 1로 읽음.

2) 등방향적 동일시(혼동/변형)운동 :

왼편의 넓은 데서 좁은 데로를 오른 편의 넓은 데서 좁은 데로로 동일시 (혼동/변형)하는 운동.

앞의 공식으로는 :  $T+q=1+\dots$



\*T는 1+...로 읽음.

0. GUILLAUME은 SAUSSURE의 공식,  $S=Sé+St$ 를  $Sé+S=St$ 로 고쳐서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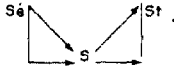
이것은 SAUSSURE의 공식  $S=Sé+St$ 을 위 2)의 등방향적  $T+q=1+\dots$ 으로 해석하고, 그에 대립시켜서,  $Sé+S=St$ 으로 수정하여, T의 이방향적  $T-q=1$ 을 표시한 것이다. 즉 :

1) SAUSSURE의 공식  $S=Sé+St$ 의 S(signe)를 등방향적인  $T+q=1+\dots$ 의(비관통적=비근원적=현실적)T로 보고,  $Sé+St$ 을 (비포착적=비차단적=첨가적) q로 보아서 SAUSSURE의 공식  $S=Sé+St$ 을, 무한대의  $1+\dots$ 을 향하여, (비관통적=비근원적=현실적 T에 해당되는 signe은 중심으로 하여, (비포착적=비차단적=첨가적) q/q'에 해당되는 Sé/St을 거느리는 선조적(=문맥적) 공존의 공식으로 해석하고, 즉

S=Sé+St을 등방향적인 탈 이중 운동 : 으로 보고, 이에 대립시켜서,

2) GUILLAUME의(관통적=근원적)초적 T에 해당하는 Sé와, (포착적=차단적)초적 q에 해

당하는 초적 S로의 운동과 그와 이방향의 (포착적=차단적) 종적 q에 해당하는 종적 S와 (관통적=근원적) 종적 T에 해당하는 종적 St으로의 이방향적 이중 운동의 공식으로 바뀌어, 즉 이방향적 동일시(혼동=변형)을 나타내기 위하여  $Sé+S=St$ 와 같이 표시한 것이다.

즉,  을 표시한 것이다.

(등방향적 탈 이중 운동적 동일시=혼동=변형)의 공식,  $S=Sé+St$ 과 대립되는 이방향적 (=이중 운동적 동일시=혼동=변형)의 공식,  $Sé+S=St$ 은 다시 바뀌어 생각하면, T-q(포착=차단=실현된 것)에 해당하는 S와 (관통적=근원적=잠재적) T에 해당하는 Sé/St 사이의 이방향적 차이를 들어낸 공식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므로, SAUSSURE의 등방향적 공식  $S=Sé+St$ 의 순서를 단순히 바꾸어  $Sé+S=St$ 이라고 자의적으로 표시한 것과는 대립된다).

이 점을 확연히 들어내고, 등방향적 이론과 이방향적 이론을 식별하기 위해서 다른 경우에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은 다음과 같이 ( $S=중$ ,  $Sé=초$ ,  $St=중$ 으로 대응시켜서) 쓸 수 있을 것이다 :

1) (관통적=근원적=잠재적)  $Sé(=초)$ (및  $St=중$ )을 위주로 하여 표시할 때는,  $Sé(=초)$ (및  $St=중$ )= $S_1(=중_1)+S_2(=중_2)$ ;

2) (차단적=포착적=실천적)  $S(=중)$ 을 위주로 하여 표시할 때는,  $S_1(=중_1)$ (및  $S_2=중_2$ )= $Sé(=초)+St(=중)$ 과 같이 표시될 수 있을 것이다.

1)과 2)의 어느 경우든, 모두 GUILLAUME의 필연적=이방향적=이중 운동적 동일시(=혼동=변형)의 테두리 안에서의 필연적인 교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와 반대로 자의적=등방향적=탈 이중운동적 동일시(=혼동=변형)을 나타내는 SAUSSURE의 공식 :  $S=Sé+St$ 은 :

1) (비관통적=비근원적=현실적)  $S(중)$ 을 위주로 하여 표시할 때는,  $S(=중)$ = $Sé(=초)+St(=중)$ ;

2) 비포착적=비 차단적=첨가적)  $Sé(=초)/St(=중)$ 을 위주로 하여 표시할 때는  $Sé(=초)+St(=중)$ = $S(중)$ 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GUILLAUME의 필연적인 교환의 경우와는 달리 1)과 2)의 교환은 자의적=등방향적=탈 이중 운동적 동일시(=혼동=변형)의 테두리 안에서의 자의적인 교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

0. HJELMSLEV의 공식\* :

위 GUILLAUME의 필연적 공식과 SAUSSURE의 자의적 공식이 갖는 근본적인 성격의 차이를 염두에 둘 때, HJELMSLEV가 SAUSSURE의 형식을 정의/발견하기 위해서 SAUSSURE의 공식을 수정하여 표시한 다음의 공식은 아래와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즉, 기호=(음성 영상+문법 영상)의 개념 즉, 기호(signe)=(지시=St+피지시=Sé)의 피지시=Sé(HJELMSLEV, Principes de grammaire générale, København, 1928, p.116 참조) : 이 공식의 성격은 SAUSSURE의 위

공식,  $S(=중)$ = $Sé(=초)+St(=중)$ 에서  $St(=중=지시)$ 를 위주로 하여 그것을 다시 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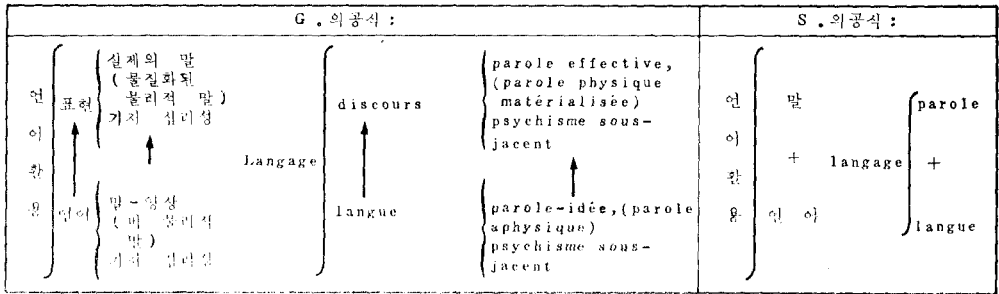
(=지시)와 Sé(=퍼지시)로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공식은 SAUSSURE의 공식과 마찬가지로 S(=기호)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St(=지시)만을 위주로 하여, 분석 표시한 공식이므로, 결국은 SAUSSURE의 S=Sé+St 공식이 갖는 자의적=등방향적=탈이중 운동적 동일시(=혼동=변형)관을 탈피하지 못한 공식이라고 할 수 있다. SAUSSURE의 공식 S=Sé+St은 S의 테두리 안에서 Sé를 위주로 한 공식, 즉 : S=(Sé+St)+St라고 해석될 수 있다. (\* 또 G. La MOIGNET, La suppléance du verbe en français, in *Le français moderne*, XXVIII, 1960, pp.13-24; pp.107-124의 H.에 대한 비판 참조).

0. BENVENISTE의 공식 :

K. BÜHLER를 한 번도 인용한 일이 없으나, BÜHLER의 연구와 전적으로 같다(INNIS, "K. Bühler," New York, 1982, p.35)고 하는 BENVENISTE의 공식 : S=(St+Sé)+Sé에 해당하는 주관성(=인간=Subjectivité)=상호 주체(Intersubjectivité)+주체(Sujet)(E. BENVENISTE, *Problème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1966, pp.266-276)는 위의 HJELMSLEV의 공식과 그 성격이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BENVENISTE가 비록 SAUSSURE의 자의적 기호관을 수정하여 필연적 기호관을 세웠다고 하나, HJELMSLEV의 공식에서와 똑 같은 이유로 SAUSSURE 또는 BÜHLER(또는 KANT)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 G의 필연적 공식 :

끝으로 G.의 필연적 언어관을 SAUSSURE와 대립되게 나타낸 그림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GUILLAUME, 1973, p.72 및 p.67 참조) :



이것이 곧 위에서 G.의 필연적 기호관의 공식. 즉 :

$$\left. \begin{array}{l} 1) S(=중)=Sé(=초)+St(=중) \\ 2) Sé(=초)+St(=중)=S(=중) \end{array} \right\} \rightarrow \text{즉 } S(=중)=(Sé+St)+(Sé+St) \text{에 해당되는,}$$

1) 언어활동(langage)=언어(langue)+표현(discours)      즉, 언활=(언+표)+(언+

2) 언어(langue)+표현(discours)=언어활동(langage)      표), 를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0. Incidence(=필연적=이 방향적=이중 운동적 동일시=혼동=변형) :

위에서 이미 설명된 동일시(=혼동=변형)를 GUILLAUME은 incidence라고 한다(G. GUILLAUME,



Leçons de linguistique 1948~1949, Série B: Psycho-systématique du langage. Principes, méthodes et applications I, Paris/Québec, 1971, pp. 141-205 참조). 이것은 다시 내부적 동일시(=혼동=변형) 운동(incidence interne)과 외부적 동일시(=혼동=변형) 운동(incidence externe)으로 구분되는데, 이 구분은 앞에서 이미 TESNIÈRE와 비교시키면서 도식화한 관동적=근원적=심리적(=정신적)운동과 포착적(=차단적)=심리적(=정신적)운동의 구분에 해당된다.

이와 대립되는 자의적=등방향적=탈 이중적 동일시(=혼동=변형)운동의 예는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MARTINET의 확대 이론 및 관계/종속/대등의 개념 그리고(비관동적=비근원적=현실적) 중심어, (비포착적=비차단적=첨가적) 비중심을 거느리는, 등방향적=동일시=혼동=변형 운동으로서의 point d'incidence(투사점)개념(Éléments..., §14-11: Il faut vite courir와 Il faut courir vite의 예)은 GUILLAUME의 설명과 외관상 같다. 그러나 그 근본은 다르다. 왜냐하면 GUILLAUME은 앞에서 누누히 반복한 바와 같이, 관동적=근원적=잠재적=심리적(=정신적) 운동으로서의 T 즉 위의 예에서는 courir와, 포착적=차단적=심리적(=정신적)운동으로서의 T-q, 즉 위의 예에서는 faut courir를 이론상으로 분명히 구분하였음에 반하여, MARTINET는 그와는 반대로, 비관동적=비근원적=비잠재적=탈심리적(탈정신적) 운동으로서의 T, 즉 위의 예에서는 courir와 그것이 거느리는 비포착적=비차단적=현실적=첨가적=탈심리적(탈정신적)운동으로서의 q 즉, 위의 예에서는 faut로 구분하는 등방향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위와 같은 이유로 JESPERSEN의 3 Ranks(예: extremely hot weather)설을 비판하면서도 그것을 정당화하는 HJELMSLEV의 관점도 MARTINET의 위의 관점과 같다고 할 수 있다. (HJELMSLEV, Principes... p. 127 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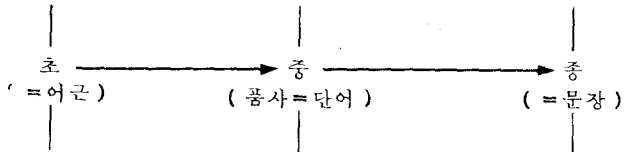
#### 0. 언어 유형론(typologie de langue: theorie du mot):

GUILLAUME의 언어 유형론은 앞에서 이미 그림으로 설명된 관동적=근원적=잠재적=심리적(=정신적) 운동으로서의 T와, 포착적=차단적=현실적=심리적(=정신적) 운동으로서의 T-q의, 필연적=이방향적=이중적 동일시(=혼동=변형)운동의 유형을, 포착적 T-q의 유형 즉 내부구조(=GUILLAUME의 형태론)의 파악을 통해서 정립하고, 이렇게 정립된 유형을, 언어의 유형의 파악에 대응시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포착적 T-q의 유형은, 이미 앞의 그림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초(I)와 중(M)과 종(F)이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 연속인 상태로 융합(fusion)되어 있느냐, 또는 불연속인 상태로 분리(diastème)되어 있느냐의 유형을 갖는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이에 대해서는 GUILLAUME, 1971, pp. 60-75 및 VALIN, 1954, pp. 51-5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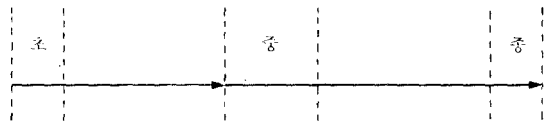
1) 연속상태로 융합된 포착적 T-q의 유형→초(I)/중(M)/종(F):

불어 및 대다수의 인구어. 이 그림을 세로로 놓을 때 수평적 형태론만이 있음.



2) 불연속 상태로 분리된 포착적 T-q의 유형→초(I)/중(M)/종(F) :

이 그림을 세로로 놓을 때, 수평적 형태론과 수직적 형태론이 모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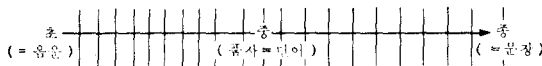
표의 문자적 음절어 : 중국어=고립어 또는 군집어

자음 어간+형태적 모음 : 셴어=kitab...

문장적 단어 : 함가리/토이기/바스크어등=교착어=일반적 요소가 문장의 뒷쪽에, 특수적 요소가 앞쪽에 있음

0. 자의적=탈이중 운동적=등방향적 유형론의 그림 :

위에서 논한 GUILLAUME의 포착적 T-q의 필연적=이방향적=이중 운동적 유형론과 대립되는 등방향적 T+q적 유형론의 그림은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즉, 비관통적 T로서의 문장(더 정확히는 탈 문장=exo-phrastic=어근과 대립되는 문장 내부적 문장=endo-phrastic)이, 첨가적=비차단적 q로서의 하위요소들을 거느리며, 무한대의 1+...을 향하고 있다. (앞에 든 MARTINET의 이중 분절설 참조).

HUMBOLDT의 유형론도 역시 등방향적 유형론에 속한다. 이에 대해서 GUILLAUME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HUMBOLDT와 같은 언어학자는 우발적(=비관통적=현실적) 사실들을 토대로 많은 일반화를 했다. 그런데 이 방대한 양의 일반화에는 아무것도, 거의 아무것도 유효한 것이 없다. 우리도 또한 상당한 일반화의 노력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였다...우리들은 우선적으로 필연적 사실들을...언어 활동의 동안에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는 사실들을 관찰함으로써 정립하려고 한 바 있다... (GUILLAUME, 1971 *Série B.* p. 61).

0. CHOMSKY의 Competence:

CHOMSKY의 competence 역시, GUILLAUME의 표현(discours)으로서의, 비관통적=현실적 문장을 중심으로 하여, 무한대의 1+...을 향하여 비포착적=첨가적 하위 요소들을 거느리는 등방향적 유형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견해는 M. MOLHO, *Linguistiques et langage*, Bordeaux, 1969, pp. 51-52를 참조).

GUILLAUME과 CHOMSKY를 비교하여, 서로 상보 관계에 있다고 하는 일이 있으나(I. VINCENZ,

Gustave Guillaume et la théorie transformationnelle <les Cahiers de linguistique théorique et appliquée, Roumanie, 1969, pp. 113-118등 참조>, 앞에서 몇몇 학자들과의 비교(SAUSSURE, HJELMSLEV, BENVENISTE, TESNIÈRE,...)에서 본 바와 같이, 차라리 TESNIÈRE와 의존 문법(dependency grammar)라는 점에서, 그리고 선명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방향적 변형(=동일시=혼동)운동을 그 골자로 하는 점에서(GUILLAUME의 incidence와 TESNIÈRE의 translation), TESNIÈRE와 상호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주의할 일은 등방향론에 속하는 이론들(SAUSSURE, WHITNEY, Hermann PAUL, DURKHEIM, CONDILLAC, ARISTOTE 등등)과 GUILLAUME의 이방향적 이론을 피상적으로 비교내지 혼동하는 일을 삼가야 할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WILMET, Grammaire Générative et Psychomécanique du Langage <Le Français moderne>, Paris, 1974, p. 295 참조). 더욱 나아가서 어떤 개인의 유명도 또는 희소 가치에 너무 역점을 두는 일도 삼가야 할 것이다.

0. GUILLAUME의 독창적 언어 이론(=심리 역학론)과 앞으로의 전망 :

GUILLAUME 자신도 자기 이론의 독창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의 제자인 R. VALIN은 GUILLAUME을 코페르니쿠스, 가릴레오, 뉴턴, 또는 빠스퇴르에 비유하여 그들의 학설이 그 진가를 얻는데 소요된 시간과 난관을 들고 있다(R. VALIN, Psychomécanique du langage: perspectives <Grammaire Générative et Psychomécanique du Langage/Generative Grammar and Psychomechanics, Bruxelles/Paris>, 1974, p. 275). 특히, 등방향적 관점에 익숙한 등방향론자들의 입장에서는 그와는 완전히 독립된 이방향적 관점이 잘 받아 들여지지 않는 난점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방향적 관점과 등방향적 관점을 철저히 구분 내지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방향적 관점의 위치와 등방향적 관점의 위치를 분명히 들어내야 할 것이다.

## Gustave GUILLAUME: La Psychomécanique du Langage et sa Méthode Comparative en Linguistique Théorique

PAK, Hyong-Dal

Cet article vise à faire ressortir l'idée centrale de Gustave GUILLAUME, l'initiateur de la *psychomécanique du langage*, en mettant l'accent sur sa *méthode comparative* en linguistique théorique.

Nous recourons, pour ce faire, au lieu d'énumérer pièce à pièce les fragments de ses idées, à la *méthode comparative* qui consiste essentiellement à éliminer les autres idées opposées, avec toutefois toutes ses considérations pour elles, et qui caractérise le fondement même de la *psychomécanique du langage*.

Nous nous refusons donc à la *méthode non comparative* qui traite des diverses théories linguistiques, morceau par morceau, sans aucun souci de distinguer entre la *méthode comparative* et la *méthode non comparative* qui s'y oppose.

Nous commençons par analyser chronologiquement quelques principaux ouvrages de Gustave GUILLAUME (par ex.: *Le problème de l'article et sa solution dans la langue française*, 1919, et *Temps et verbe*, 1929) et d'autres matériaux (par ex.: *Leçons de linguistique de Gustave GUILLAUME*, publiées par Roch VALIN depuis 1971), et ensuite essayons de comparer la *méthode comparative* de GUILLAUME avec les théories *non comparatives* de quelques linguistes (par ex.: SAUSSURE, MEILLET, HJELMSLEV, BÜHLER, BENVENISTE, MARTINET, CHOMSKY). Le résultat en est peut se résumer en ceci:

- 1) La notion de *l'entité tensive à caractère bi-directionnel (=hétérogène)*, qui peut se formuler en ( $T$ =tension;  $q$ =quantum=saisie=interception;  $1$ =noeud; “-”=résistance interne=incidence interne; „+”=résistance externe=incidence externe):

$$(T_1 - q_2)_1 + (T_2 - q_1)_2 = 1 (= \text{noeud}), \text{ qui s'oppose à:}$$

la notion de *l'entité non tensive (=additionnelle) à caractère uni-directionnel (=homogène)*, qui peut se formuler en ( $T$ =non tension=addition;  $q$ =addition;  $1 + \dots$ =noeud; “(+)”=addition interne; “( )+( )”=addition externe):

$$(T_1 + q_1)_1 + (T_2 + q_2)_2 = 1 + \dots$$

Ces deux formules diamétralement opposés nous permettent à ne pas tomber dans le piège des rapprochements superficiels entre ces deux idées même opposées. D'où:

- 2) L'existence de deux types de rapprochement, c'est-à-dire *le type de rapprochement (profond)* et *le type de rapprochement (surfacial)*. Nous pouvons citer comme premier type de rapprochement (*profond*) le rapprochement entre le GUILLAUME et le TESNIÈRE, le dernier (=TESNIÈRE) n'étant qu'un prolongement ou une réalisation (la plus) concrète du premier (=GUILLAUME). Nous pouvons également citer comme second type de rapprochement (*surfacial*) le rapprochement entre le BLOOMFIELD et le CHOMSKY, le dernier(=CHOMSKY) n'étant qu'une réaction contre le premier (=BLOOMFIELD) dans le même cadre, ou une réalisation (la plus) concrète du premier (=BLOOMFIELD), ce qui est hors la limite de cet article, et qui exige l'autre exposé sous le titre: *La Typologie des Théories Transformationnelles*.